



‘불닭 신화’
삼양식품
중생산법인 설립
니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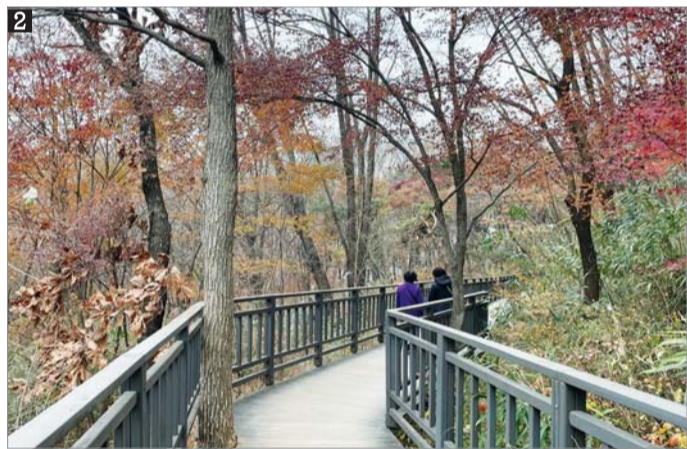
최대 90%할인
크리스마스 특수
승부수
L2



‘용의 전설’ 깃든 산 정상 올라, 청룡의 해 돌아볼까

❖ 되살아나는 서울 ❷ 양천구 ‘용왕산공원’

서울 양천구 목동에는 21만3552㎡ 규모의 ‘용왕산공원’이 자리해 있다. 공원은 안양천이 한강과 합류하는 올림픽대로 인근에 위치했으며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반려견 놀이터, 야외무대, 실내 배드민턴장, 약수터, 유아 숲 체험장 등을 갖췄다. 과거 목동은 목초가 우거져 말을 방목하고 키우는 지역이었다. 목동과 그 가족이 모여 살아서 목동(牧洞)으로 일컬어지다가 훗날 나무목(木)을 붙인 목동(木洞)으로 바뀌었다.



1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기념으로 세워진 정자 ‘용왕정’.
2 유아차·휠체어도 이용하기 쉽게 조성한 무장애 숲길.
3 용왕산공원 내 맨발황톳길.

/김현정 기자

◆용왕산에 깃든 전설은?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린 지난 16일 용왕산공원을 찾았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 3번 출구로 나와 6620번 버스를 타고 6개 정류장을 이동해 월촌초등학교 정거장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목동 우성아파트 102동 쪽으로 가면 공원과 맞닿은 용왕정길이나 온다. 굽이굽이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 무장애 숲길 진입로에 다다랐다.

무장애 숲길은 유아차를 끄는 보호자나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이용하기 쉽게 완만한 경사의 데크로 조성됐다. 이날 오후 숲길 들머리에선 두툽한 패딩과 마스크, 털모자와 장갑으로 무장한 모녀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순도순 정담게 대화를 나누며 산책하는 두 사람을 지나 공원 내 다목적운동장으로 향했다. 인적이 드물어 제법 한산한 숲길과 달리 운동장은 체력 단련을 하는 주민들로 북적여 활력이 넘쳤다. 어르신들은 공중 걷기, 허리 돌리기, 노 젓기, 윗몸 일으키기, 역기 내리기 등을 돌아가며 하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운동을 하다가 땀을 많이 흘린 노인은 두꺼운 잠바를 고이 접어 벤치에 올려 두고 열을 식히며 가벼운 숨을 몰아쉬었다.

안양천-한강 합류하는 곳에 위치한 공원 왕이 꿈 바탕으로 산에 얽힌 전설 생겨 엄지산에서 왕 상징하는 ‘龍’·‘王’자 붙여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을 보며 노인과 왕, 용이 등장하는 용왕산의 전설을 떠올렸다. 용왕산은 옛 지도에 엄지산(嚴知山)으로 기록돼 있다. 해발 78m와 68m의 두 봉우리가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 해 이 같이 불렸다. 평범하고 지루했던 산명은 왕이 꿈 꿈을 계기로 비범하고 신묘한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

어느날 왕은 갈대가 무성한 천호지벌(현 목동 신시가지 지역)에서 기운이 세고 험상궂은 장수가 자신을 해치는 꿈을 꾸게 된다. 흉몽이 째째했던 왕은 신하에게 천호지벌을 살펴보고 오라고 시킨다. 그 무렵 엄지산 아래 박씨 성을 가진 노인이 임종을 맞으며 자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긴다. “내가 죽거든 남들에게 알리지도, 염도 말고 그대로 관에 넣어서 물구나무서듯 머리가 땅을 향하게 세워 묻거라”

자손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관습대로 장례를 치른다. 한편 왕의 명을 받고 한양에서 온 신하들은 천호지벌을 살살이 뒤지던 중 얼마 전 장례를 마친 박씨 노인의 봉분이 파헤쳐진 것을 알게 된다.

시신은 사라지고 관은 부서진데다가 무덤에서 산 아래로 길게 파 내려간 흔적까지 발견된다. 이들은 수상한 흔적을 따라가다 갈대가 빼곡한 언뜻 속에서 거대한 용이 밧줄에 묶여 꿈들

완만한 경사의 데크 조성 ‘무장애 숲길’ 서울 정도 600년 기념 팔각정 ‘용왕정’ 불공 드렸던 호랑이 모양의 ‘범바위’도

거리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목격한다. 언뜻을 에워싼 군사들은 활과 창으로 용을 공격한다. 그렇게 용은 힘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박씨 노인의 유언이 지켜졌으면 왕의 꿈처럼 용이 힘센 장수로 변신해 한 나라의 수장이 됐을 것이라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엄지산은 왕을 상징하는 ‘용(龍)’자와 ‘왕(王)’자를 합쳐 용왕산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엄지산은 이름에 ‘왕’자가 포함된 왕령산, 왕재산으로도 일컬어졌다.

◆용왕정·황톳길서 놀멍쉬멍

다목적운동장 한켠엔 언뜻과 같이 둥글게 담이 둘러 맨발황톳길이 마련됐다. 안타깝게도 이날은 황토 위에 얇게 얼음이 덮여 있어서 황토 체험장을 이용할 수 없었다. 황톳길 옆엔 유리 온실처럼 생긴 쉼터가 설치됐다. 쉼터는 여가를 즐기러 온 노인들로 붐볐다. 할아버지들은 이곳에 웅기종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거나 장기를 뒀다.

쉼터 뒤로 난 갖길을 따라 용왕정으로 갔다. 용왕산 정상에 있는 용왕정은 1994년 서울 정도 600년(1394~1994)을 기념해 세워진 팔각형 정자로, 조선 중기 건축 형태로 건립됐다. 정자에 올라 한강 풍광을 감상했다. 해가 짙어갈 날엔 남산서울타워와 롯데월드타워도 보인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날은 안개가 가득해 가시거리가 짧아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를 볼 수 없었다.

용왕산에는 호랑이 모양을 한 ‘범바위’도 있다. 세월이 흐르며 지물명이 ‘범바위’로 바뀌었는데, 자식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불공을 드린 후 효험을 봤다는 말이 전해진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잡**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원해진 멀티골’ 이재성, 분데스리가 14라운드 ‘이주의 팀’
▲젊은 선수 활약에 활짝... ‘주장’ 손흥민 ‘모두가 제 역할, 자랑스러워’ /사진 뉴시스

▲여자친구, 데뷔 10주년 콘서트 1회 추가...3회 7500명 규모
▲‘슈퍼맨’ 2025년 7월 복귀...제임스 건 연출·각본



▲두산 떠난 제러드 영, 뉴욕 메츠와 메이저리그 계약
▲맘마미아, 렌트 온다...2025 신시컴 퍼니 라인업 /사진 뉴시스